



보도자료

▶ 여성고용과 최기동 과장
박미심 사무관

TEL : (02) 2110-7287,7291
FAX : (02) 502-5442

▶ 2009. 1. 13 배포
▶ 총 2쪽

주부들에게 재취업훈련기회 활짝 열려

- 노동부, "경력단절여성 특화훈련"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행 -

- 결혼·출산·육아 등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고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 다양한 직업훈련 과정이 제공된다.
- 노동부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실시되는 「경력단절여성 특화 훈련프로그램」(예산 70억원, 훈련인원 5,138명)을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.
- 노동부는 1월 중순부터 말까지 공공·민간 직업훈련기관, 여성인력개발센터, 여성회관, 대학, 여성 단체 등을 대상으로 훈련과정을 공모한다.
 - 이후 서류심사 등을 거쳐 2월중에 훈련기관 및 과정을 선정하고, 본격적인 훈련과정을 개설 운영할 계획이다.
- 그동안 실업자 훈련사업을 통해 여성들이 훈련에 참여해 왔으나, 다양한 여성특화 훈련과정을 제공하는데 부족한 실정이었다.
 - 따라서, 여성들에게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이 훈련에 기존 실업자훈련 실시기관 이외에도 역량있는 훈련 희망기관이 신규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였고,

* (예) 훈련기관 대표자의 요건 완화
: 교육훈련경력 3년 이상 → 교육훈련 및 실무경력 1년 이상

- 훈련직종도 기존에 실시한 훈련과정 이외에도 훈련의 적정성이 인정되면 신규과정, 새로운 훈련방식을 도입한 과정 등 다양한 과정이 승인받아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.

◆ 훈련과정 예시

- 인력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거나 또는 지역 특화산업 및 전략산업 중에서 경력단절여성에게 적합한 일반직종
(예: 서비스분야, 사무관리분야, 공예분야 등)
- 고학력 및 전문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한 전문직종
(예: 의료분야, 금융·보험분야 등)
- 한국고용정보원,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경력단절여성을 위해 최근에 개발한 훈련직종 중에서 취업이 용이한 직종

- 이 훈련은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, 특히 30~4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대 입직기에 비해 크게 낮아지는 M-curve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.

* 여성경제활동참가율 (15-64세, '07년) : 우리나라 54.8%, 미국 69.1%, 영국 69.8%, 일본 61.9%, OECD 평균 61.1%

- 노동부 최기동 여성고용과장은 "이 훈련프로그램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「집단상담-직업훈련-취업지원서비스」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"여성새로일하기센터" 사업과 최근 간호사 부족현상에 대응하여 수립한 「유휴간호사 재취업 촉진방안」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경력단절여성의 고용확대와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"고 밝혔다.